

강의 11

인간과 환경

가림바들(상경도)

박 영 숙

한국 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인간과 환경」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I 들어가는 말:

환경이란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생명체의 삶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인 조건들의 총체라고 되어 있다. 환경이란 어떤 주체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주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변 여건들의 총체라고 본다. “인간과 환경”이라고 하면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삶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주변 여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생활환경, 사회환경, 그리고 생태환경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생명과 직결되는 환경은 생태환경이다. 생태환경은 인간의 삶의 터전이며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생태환경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생태환경이 곧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의 세계에서의 현실은 생명의 근원인 생태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현대문명의 위기의 요인인 생태환경의 오염이 심각해 졌다. 안심하고 마실 수 없는 물 문제를 비롯해서, 대기오염, 식품오염, 쓰레기문제등으로 인간은 생태계의 큰 변화의 시점에 놓여 있다. 지금은 오염시대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염시대를 살고 있다. 세계는 온통 천재(한발, 홍수, 지진, 이상기온, 이변등)와 인재(체루노빌원전사고, 페만전쟁, 인도보팔의 유니온카마이이트공장 사고, 미국 로부카넬의 다이옥신사고등)로 인한 불안 속에 처해 있다. 천재와 인재는 서로 연계되어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오늘의 생태환경문제가 전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은 생태계 파괴현상이 한 지역이나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지되었으나 70년대까지도 뒷전에 밀려있던 환경문제가 21세기를 향한 역사의 전환점에서 안정보장문제, 경제문제와 나란히 3대 과제 중 하나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게된 것은 그만큼 오늘의 생태환경이 위협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의 생존문제는 현세대인이 생태환경오염문제를 과연 해결해 낼 수 있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21세기야말로 생명탄생 이후의 최대위기의 세기라고 할 수 있다.

II 생태환경 위기의 원인:

오늘의 생태계 파괴현상은 지난 200년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자연자원을 소모해서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하는 현대인들의, 생활양식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인구증가 문제와 도시화문제 그리고 빈곤문제들이 생태환경 파괴 현상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따른 첫째 잘못은 인간들이 최근까지 모든 것을 인간중심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해 왔다는데 있다. 지구와 생물권이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동양과는 달리 자연을 정복대상으로 여겨 왔던 서구에서 더욱 그래 왔다.

서구에서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공업화시대로 이끌어온 결과 생태환경을 위기로 몰아 넣어 인간의 삶의 거처를 훼손하였다. 자연생태계를 생존경쟁, 약육강식이란 틀로 관찰하고 먹느냐 먹히느냐의 각축장으로 보았다. 반면 동양에서는

자연을 공존의 관계에서 관찰하여 인간이 사라 숨쉬듯 자연도 사라 숨쉬고 있으며, 사람과 자연은 더불어 사는 것이지만 다른 하나를 정복할 수는 없다고 본다. 사람에게 살려는 의지가 있듯이 자연에게도 살려는 의지가 꿈틀거린다는 것이다. 생태계(Ecology)라는 말의 어원은 희랍어로 Oikos인데 이 말은 집이라는 뜻이다.

우리인류가 처음으로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게 된 것은 아폴로 우주선이 발사된 불과 20여년전의 일이다. 그때 인간이 발견하게 된 것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지구가 하나의 작은 행성에 불과하며 인간이 생물권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인류의 사고의 전환은 제2의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고 불러 지고 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며 동식물과 무생물을 포함한 모든 것은 인간에게 유익 무익을 불문하고 독자적인 존재의 권리와 양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식물과 인간은 공동운명체이다.

물체 잘 못은 만물의 삶의 터전이며 미래의 모든 세대의 거처인 생태계가 마치 현대인만의 것인 양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치 지구의 마지막세대인 것처럼 함부로 지구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지구를 중요하게 여겨라, 그것은 당신들의 부모에게서 받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신들의 자손으로부터 신탁 받은 것이다." 라는 케냐의 격언에서 비롯된 우리는 지구를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서 빌려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후손인 미래세대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만큼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우리의 공동미래" 보고서에서 주창하고 있는 21세기 세계 만들기의 핵심 원칙인 "환경 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 ESSD"은 미래의 세대가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세대의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개발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세대간의 윤리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자기자손 곧 미래세대에 대한 현재세대의 책임이다. 현재세대의 자연자원의 남용은 미래세대의 몫을 앞당겨 쓰는 것이 되며 후손에게 빈곤을 안겨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셋째 잘못된 인간이 활용하고 있는 자연자원이 무한대로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60년대 말에 세계의 현인들의 모임인 톨스토이의 「성장의 한계」 보고서는 고갈되어 가는 자연자원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①인구증가 ②식량생산 ③공업화 ④환경오염 ⑤재생불능 자원소비의 증가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성장을 지금과 같이 계속할 경우 인류는 100년안에 파국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사회의 성장의 추구가 물질우선 경제우선 이 지속되는 한 21세기 중반에 이르면 지구는 환경오염, 자원, 에너지, 식량고갈에 의해 붕괴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자원은 유한한 것이다.

70년대의 이러한 자원고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계속해 온 인류는 오늘날 자원고갈의 위험보다 더 급한 폐기를 처리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구의 자정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류는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다.

III 대책은 무엇인가:

지구를 환폐시켜서 현재대로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세대의 우선 과제이다. 자손의 세대에도 그리고 그후세에도 발전을 계속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서 장래 세대의 삶을 지탱시킬 수 있는 생태계의 능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수행에는 정부, 기업을 비롯한 각사회구성원들의 각각의 역할이 있게 마련이나 자녀교육을 위한 어머니 교실에서는 생활의 원점에서 생태환경을 지키는 일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최근 「주방에서 지구가 보인다」 또는 「주방에서 사회를 변혁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고 보면 「주방에서 자녀교육을 한다」라는 말도 가능해진다. 그 이유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 환경문제가 아무리 거창하고 복잡하지만 그 해결은 생활의 원점인 주방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하라」라는 지구환경운동의

표어를 달리 표현한 것이다. 주방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곳이어서 생활의 원점이 된다.

「생활의 원점에서 환경을 지킨다」라는 것은 모든 생활인이 자기가 선 자리에서 매일의 생활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환경의 파수꾼이라는 것이다.

인류가 직면한 환경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세대인의 생활양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이란 우선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소비미덕의 생활양식을 반성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전기 욕으로 버터를 썰기까지 한다」는 미국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생활수준을 선망한 나머지 성장위주의 국가정책에 박수갈채를 보내며 부추겨 왔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보릿고개」라는 이름의 빈곤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 누리게 된 중요한 생활대신 무거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물 문제, 공기문제, 먹거리문제, 대두아 무너져 탄생문제 등이 그것이다. 지구적으로는 오존층파괴, 산성우, 지구온난화등의 지구위기의 경기가 있다.

오직 하면 최승호 시인이 "공장시대"라는 시에서 "무너아를 낳고 보니 산모는 몸안에 공장지대가 들어선 느낌이다. 젖을 짜면 흘러내리는 허연 폐수와 아이 배꼽에 데달린 비닐 끈들, 저 굴뚝과 나는 간통한 것이 분명해"라는 말로 오늘의 생태환경을 비판했겠는가!

우리는 자칫 생태환경의 훼손이 나의 삶의 양식과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문제가 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생태파괴 현상을 생산과정에서만 생기는 것으로 말하고 있었지만 폐기물 처리문제에서 보듯이 소비과정에서 생기는 요인도 생산과정에 못지 않다. 모든 사람은 생산과정과 소비과정에서의 생태계 훼손의 책임을 져야 한다. 어쨌거나 생산은 소비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모두는 환경파괴에 있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 가해자로서는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실천 수범해야 하는가 하면 피해자로서는 정부와 기업을 감시하며 지역환경과 지구환경을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

환경친화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①우리의 일상생활의 환경정점(Eco-Check)을 잊지 않고 하는 것이다. 에너지 절약, 쓰레기감량, 자원재활용, 대중교통수단 활용, 물의 절약 및 재사용, 적정량의 물질사용등의 소비를 주리는 생활을 말한다. 예를 들면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고 버리기까지의 과정, 꼭 필요한가,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가전제품인 경우 전기절약형 인가 재활용이 가능한가 또는 공해 식품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한다.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정리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한다. 영국을 포함한 외국의 경우 자선활동을 위한 수천의 중고품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자주 쓰지 않는 기구 등은 임대해서 사용하거나 공유하도록 한다. 최종적으로 폐기할 때는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도록 하며 재생용품 우선 구입해서 사용한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교환하며,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환경운동체에 가담하는 것이 현명하다.

②지역환경을 보전하고 감시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늘과 같이 행정부의 환경의식의 미약함과 인력부족을 감안할 때 지역환경을 지키는 일은 지역주민이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전면 실시 예정인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면 시민자치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피해자로서의 환경감시 책임도 다해야 한다.

③피해자로서의 또하나의 의무는 기업에 대한 환경감시이다. 우리 나라의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에 비해 환경친화성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에게 는 구미의 나라들과 같이 기업과 상품을 환경 적으로 평가한 안내서도 없다. 환경친화상품제도가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크게 좌우하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최근에는 많은 상품들이 녹색상품인양 그리고 기업들이 녹색기업인양 광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과연 광고내용과 같이 환경친화적인 공정을 거쳐서 물품을 만들고 있는지 폐기물배출을 억제하며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공해방지 기술개발을 비롯한 환경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등의 감시를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와 함께 소비자의 뭉쳐진 힘으로 해내야 한다.

근래에 와서 우리 나라에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주부운동, 주민운동, 생활협동조합운동, 자연농산물직거래운동, 재활용품분리수거운동,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운동등, 친환경적인 생활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러한 운동은 도시주민의 건강한 식탁과 지역환경을 만들고 UR로 인한 폐농의 위기에 처한 우리 나라의 농촌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도농간에 막혔던 장벽이 제거된 유기적인 관계로 우리의 사회를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농촌이 살아야 도시도 산다는 정신에서이다.

IV 자녀교육과 생태환경:

최근에 특별히 젊은이들과 관련된 반윤리적인 사회병리현상이 사회문제화 될 때마다 잘못된 교육을 탓하면서 비정상적인 사회 환경이나 가정교육 부재를 문제 삼고 있다.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요즘 청소년들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고 과거에 비해 인내심도 약하다고들 한다. 경쟁의식을 고취시키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은 물론 그 경쟁을 뚫게 하기 위한 과보호적인 가정분위기가 바로 그렇게 만든 원흉이라고 본다.

오늘의 우리자녀들은 먹거리나 생활용품, 학용품 어느것 하나 귀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풍부한 분위기에서 성장하고 있다. 또한 하고싶은것에 대한 절제를 배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만큼 부모들은 미리 대령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입시준비학생이 있는 경우 가정생활과 가정경제가 모두 그를 중심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 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첫 학습장이 어머니의 무릎이며 첫 교사가 어머니인 것과 교육은 어릴수록 효과가 있다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친환경적인 생활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야 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자연자원은 유한한 것이어서 소비를 절제해야 하며 자연의 순환원리를 터득케 하는 생활양식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물질적인 양에서 찾던 것을 비물질적인 질에서 찾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근래 주창되고 있는 「세계화를 위한 신교육」은 세계 중심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가 세계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으나 무엇으로 중심이 되겠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아주 중요하다. 만에 하나 그 내용이 경제 제일국가 또는 생활수준 향상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환경적인 발상이다. 생명과 직결된 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한 자녀교육은 필수적인 것이며 자녀들의 올바른 자연관, 세계관등의 교육을 통해 먹지체의 균형 잡힌 인간 교육을할 수 있다고 여겨서 오늘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친환경적인 생활교육을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V 맺는말:

오늘날 환경보전을 위해 온 국민이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필두로 장바구니들기운동, 무공해 먹거리를 위한 소비자운동등이 전개되고 있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연자원을 아끼는 일이다. 덜 쓰고 덜 버려야 한다. 그리고 유독한 것은 아예 만들지도 쓰지도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소모형 체제에서 순환형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은 개인생활을 자숙하는데 끝일 것이 아니라 사회윤리로 이끌어 내기 위한 사회운동 내지는 정치운동으로 전개해야한다. 이러한 생활양식의 전환은 가치관의 대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인간과 환경」

환경사상연구소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I 들어가는 말:

환경이란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생명체의 삶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인 조건들의 총체라고 되고 있다. 환경이란 어떤 주체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주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변 이건의 총체라고 본다. "인간과 환경"이라고 하면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삶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주변 이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생활환경, 사회환경, 그리고 생태환경등을 들수 있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생명과 직결되는 환경은 생태환경이다. 생태환경은 인간의 삶의 터전이며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생태환경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생태환경이 곧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의 세계에서 현실은 생명의 근원인 생태환경이 위협 받고 있다. 현대문명의 위기의 요인인 생태환경의 오염이 심각해 졌다는 것이다. 안심하고 마실수 없는 물 문제를 비롯해서, 대기오염, 식품오염, 쓰레기문제등으로 인간은 생태계의 큰 변화의 시점에 중요 있다. 지금은 오염시대 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염시대를 살고 있다. 세계는 온통 천재(한발, 홍수, 지진, 이상기온, 이변등)와 인재(체루노빌원전사고, 폐만전쟁, 인도보팔의 유니온카마이트공장 사고, 미국 로부카넬의 다이옥신사고등)로 인한 불안 속에 처해 있다.

오늘의 생태환경문제가 전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은 생태계 파괴현상이 한지역이나 한국가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60년대까지는 인지조차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70년대까지도 뒷전에 밀려 있던 환경문제가 21세기를 향한 역사의 전환점에서의 역사의 중요한 과제인 안정보장 문제, 경제문제와 나란히 3대 과제의 하나로 부상하게 된 것은 그만큼 오늘의 생태환경이 위협에 처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의 생존문제는 현세대인이 생태환경오염문제를 과연 해결해 낼 수 있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21세기야말로 생명탄생 이후의 최대위기의 세기라고 할 수 있다.

II 생태환경 위기의 원인:

오늘의 생태계 파괴현상은 지난 200년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자연자원을 소모해서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하는 현대인들의, 생활양식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인구증가 문제와 도시화문제 그리고 빈곤문제들이 생태환경 파괴 현상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따른 첫째 잘못은 인간들이 최근까지 모든 것을 인간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 왔다는데 있다. 지구와 생물권이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동양과는 달리 자연을 정복대상으로 여겨 왔던 서구에서 더욱 그래 왔다. 서구에서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것이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공업시대로 이끌어온결과 생태환경을 위기로 몰아 넣어 인간의 삶의 거처를 훼손하였다. 자연생태계를 생존경쟁, 약육강식이란 틀로 관찰하고 먹느냐 먹히느냐의 각축장으로 보았다. 반면 동양에서는 자연을 공존의 관계에서 관하여 인간이 사라 숨쉬 듯 자연도 사라 숨쉬고 있으며, 사람과 자연은 더불어 사는 것이지 다른 하나를 정복할 수는 없다고 본다. 사람에게 살려는 의지가 있듯이 자연에게도 살려는 의지가 꿈틀거린다는 것이다. 생태계(Ecology)라는 말의 어원은 회합으로 Quicks인데 이 말은 집이라는 뜻이다.

우리인류가 처음으로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게 된 것은 아폴로 우주선이 발사된 불과 20여년전의 일이다. 그때 인간이 발견하게 된 것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 었다. 지구가 하나의 작은 행성에 불과하며 인간이 생물권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인류의 사고의 전환은 제2의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고 불러 지고 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며 동식물과 무생물을 포함한 모든 것은 인간에게 유익 무익을 불문하고 독자적인 존재의 권리와

양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잘 못은 만물의 삶의 터전인 생태계가 마치 현대인 만의 것인 양 우리가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구를 중요하게 여겨라, 그것은 당신들의 부모에게서 받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으로부터 싣아 받은 것이다.” 라는 케냐의 격언에서 비롯된 “우리는 지구를 선조에게서 물려받았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서 빌려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후손인 미래세대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만큼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공동미래”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21세기 세계 만들기의 핵심 원칙인 “환경 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 ESSD” 미래의 세대가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대대의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개발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세대간의 윤리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은 자기자손 곧 미래세대에 대한 현대대의 책임이다. 현대대의 자연자원의 남용은 미래 세대의 몫을 앞당겨 쓰는 것이 되며 후손에게 어려움을 안겨 주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셋째 잘못된 인간이 활용하고 있는 자연자원이 무한대로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60년대 말에 세계의 현인들의 모임인 톨론펜의 「성장의 한계」 보고서는 고갈되어 가는 자연 자원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①인구증가 ②식량생산 ③공업화 ④환경오염 ⑤재생 불가능 자원소비의 증가 문제 등이 상호작용하는 성장을 지금과 같이 계속할 경우 인류는 100년안에 파국을 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간사회의 성장의 추구가 물질우선 경제우선 이 지속되는 한 21세기 중반에 이르면 지구는 환경오염, 자원, 에너지, 식량고갈에 의해 붕괴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70년대의 이러한 자원고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계속해 온 인류는 오늘날 자원고갈의 위험 보다 더 더급한 폐기물 처리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구의 자정능력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류는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다.

III 대책은 무엇인가:

지구를 환폐시켜서 현대대로서 끝나지 않도록 자손의 세대에도 그리고 그후에도 발전을 계속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서 장래 세대의 삶을 지탱시킬 수 있는 생태계의 능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현대대의 우선과제이다.

이러한 과제수행에는 정부, 기업을 비롯한 각사회구성원들의 각각의 특수역할이 있게 마련이나 자녀교육을 위한 어머니 교실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생활의 원점에서 생태환경을 지키는 일이 보다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최근 「주방에서 지구가 보인다」 또는 「주방에서 사회를 변혁한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러고 보면 「주방에서 자녀교육을 한다」 라는 말도 가능해진다. 그 이유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 환경문제가 거창하고 복잡하지만 그 해결은 생활의 원점인 주방에서부터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하라」에서 파생된 표현이다. 주방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곳이어서 생활의 원점이 된다.

「생활의 원점에서 환경을 지킨다」라는 것은 모든 생활인이 자기가 선 자리에서 매일의 생활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환경의 파수꾼이라는 것이다.

인류가 직면한 환경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인의 생활양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이란 우선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소비미덕의 생활양식을 반성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 한채 「전기 톱으로 버터를 썰기까지 한다」는 미국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생활수준을 선망한 나머지 성장위주의 국가정책에 박수갈채를 보내며 부추겨 왔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보릿고개」라는 이름의 빈곤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 누리게 된 풍요한 생활대신 무거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물 문제, 공기문제, 먹거리문제, 대두아 무늬아 탄생문제등이 그것이다. 지구적으로는 오존층파괴, 산성우, 지구온난화등의 지구위기의 경고가있다.

오직 하면 최승호라는 시인이 "공장시대"라는시 글귀로서 "무늬아를 낳고 보니 산모는 몸안에 공장지대가 들어선 느낌이다. 젖을 짜면 흘러내리는 허연 폐수와 아이 배꼽에 매달린 비닐 장갑, 지 굴뚝과 나는 간통한 것이 분명해"라는 말을 썼겠는가!

우리는 자칫 생태환경의 훼손이 나의 삶의 양식과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문제가 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생태파괴 현상을 생산과정에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폐기물 처리문제에서 보고 있듯이 소비과정에서 생기는 요인도 생산과정에 못지 않다. 모든 사람은 생산과정에서의 그리고 소비과정에서의 생태계 훼손의 책임을 지야 한다. 어쨌거나 생산은 소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데에서도 모든 책임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

우리모두는 환경파괴에 있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 가해자로서는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실천 수범해야 하는가 하면 피해자로서는 정부와 기업을 감시하며 지역환경과 지구환경을 지킨 의무를 가지고 있다.

환경친화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①우리의 일상생활의 환경점검(Seo-Check)을 잊지 않고 하는 것이다. 에너지 절약, 쓰레기감량, 자원재활용, 대중교통수단 활용, 물의 절약및 재사용, 적정량의 물질사용등의 소비를 우리는 생활을 말한다. 예를 들면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고 버리기까지의 과정, 꼭 필요한가,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가전제품인 경우 전기절약형 인가 재활용이 가능한가 또는 공해 식품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한다.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정리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한다. 영국을 포함한 외국의 경⁰자선 활동을 위한 수천의 중고품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자주 쓰지 않는 기구 등은 임대해서 사용하거나 공유하도록 한다. 최종 폐기 할 때는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도록 하며 재생용품을 우선 구입해서 사용한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교환하며,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환경운동체에 가담하는 것이 현명하다.

②지역환경을 보전하고 감시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늘과 같이 행정부의 환경의식의 미약함과 인력부족을 감안할 때 지역환경을 지키는 일은 지역주민이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전면 실시 예정인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면 시민자치시대가 열리게 되면 피해자로서의 환경감시 책임도 다해야 한다.

③피해자로서의 또하나의 의무는 기업에 대한 환경감시이다. 우리 나라의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에 비해 환경친화성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에게 구미의 나라들과 같이 기업과 상품을 환경 적으로 평가한 안내서도 없다. 환경친화상품제도가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크게 좌우하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최근에는 많은 상품들이 녹색상품인양 그리고 기업들이 녹색기업인양 광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과연 광고내용과 같이 환경친화적인 공정을 거쳐서 물품을 만들고 있는지 폐기물배출을 억제하며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공해방지 기술개발을 비롯한 환경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등의 감시를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와 함께 소비자의 뭉쳐진 힘으로 해내야 한다.

근래에 와서 우리 나라에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주부운동, 주민운동, 생활협동조합운동, 자연농산물직거래운동, 재활용품분리수거운동,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운동등, 친환경적인 생활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러한 운동은 도시주민의 건강한 식탁과 지역환경을 만들고 UR로 인한 폐농의 위기에 처한 우리 나라의 농촌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도농간에 막혔던 장벽이 제거된 유기적인 관계로 우리의 사회를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농촌이 살아야 도시도 산다는 말이다.

IV 자녀교육과 생태환경:

최근에 특별히 젊은이들과 관련된 반윤리적인 사회병리현상이 사회문제화 될 때마다 잘못된 교육을 탓하면서 비정상적인 사회 환경이나 가정교육 부재를 문제 삼고 있다. 일반적인 현상으로

서 요즘 청소년들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며 과거에 비해 인내심도 약하다고들 한다. 경쟁의식을 고취시키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을 물론 그 경쟁을 뚫게 하기 위한 과보호적인 가정분위기가 바로 그렇게 만든 원흉이라고 본다.

오늘의 우리자녀들은 먹거리나 생활용품, 학용품 어느것 하나 귀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풍부한 분위기에서 성장하고 있다. 또한 하고싶은것에 대한 절제를 배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만큼 부모들은 미리 대령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입시준비학생이 있는 경우 가정생활과 가정경제가 모두 그를 중심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 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첫 학습장이 어머니의 무릎이며 첫 교사가 어머니인 것과 교육은 어릴수록 효과가 있다고 하는 점을 고려할때 친환경적인 생활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야 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자연자원은 유한한 것이어서 소비를 절제해야 하며 자연의 순환원리를 터득케 하는 생활양식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물질적인 양에서 찾던 것을 비물질적인 질에서 찾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근래 주창되고 있는 「세계화를 위한 신교육」은 세계 중심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가 세계 중심국가로 발돋움 하는 것을 마다할지는 모르나 무엇으로 중심이 되겠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아주 중요하다. 만에 하나 그 내용이 경제 제일국가 또는 생활수준 향상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환경적인 발상이다. 생명과 직결된 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한 자녀교육문제는 오늘의 어머니들의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V 맺는말:

오늘날 환경보전을 위해 온 국민이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필두로 장바구니들기운동, 무공해 먹거리를 위한 소비자운동등이 전개되고 있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연자원을 아끼는 일이다. 덜쓰고 덜 버려야 한다. 그리고 유독한 것은 아예 만들지도 쓰지도 않도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소모형 체제에서 순환형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은 개인생활을 자숙하는데서 한발자욱 나아가 힘을 모아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의 전환은 가치관의 대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과학의식 연구회
지구환경문제와 과학의식의 역할
'96-5-16 11:10-11:40

「인간과 환경」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I 들어가는 말:

환경이란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생명체의 삶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인 조건들의 총체라고 되고 있다. 환경이란 어떤 주체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주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변 여건들의 총체라고 본다. "인간과 환경"이라고 하면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삶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주변 여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생활환경, 사회환경, 그리고 생태환경등을 들수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생명과 직결되는 환경은 생태환경이다. 생태환경은 인간의 삶의 터전이며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생태환경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생태환경이 곧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의 세계에서 현실은 생명의 근원인 생태환경이 위협 받고 있다. 현대문명의 위기의 요인인 생태환경의 오염이 심각해 졌다는 것이다. 안심하고 마실수 없는 물 문제를 비롯해서, 대기오염, 식품오염, 쓰레기문제등으로 인간은 생태계의 큰 변화의 시점에 서 있다. 지금은 오염시대 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염시대를 살고 있다. 세계는 온통 천재(한발, 홍수, 지진, 이상기온, 이변등)와 인재(체루노빌원전사고, 페만전쟁, 인도보팔의 유니온카마이트공장 사고, 미국 로부카넬의 다이옥신사고등)로 인한 불안 속에 처해 있다.

오늘의 생태환경문제가 전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은 생태계 파괴현상이 한지역이나 한국가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60년대까지는 인지조차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70년대까지도 뒷전에 밀려 있던 환경문제가 21세기를 향한 역사의 전환점에서의 역사의 중요한 과제인 안정보장 문제, 경제문제와 나란히 3대 과제의 하나로 부상하게 된 것은 그만큼 오늘의 생태환경이 위협에 처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의 생존문제는 현재대인이 생태환경오염문제를 과연 해결해 낼 수 있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21세기야말로 생명탄생 이후의 최대위기의 세기라고 할 수 있다.

II 생태환경 위기의 원인:

오늘의 생태계 파괴현상은 지난 200년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자연자원을 소모해서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하는 현대인들의, 생활양식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인구증가 문제와 도시화문제 그리고 빈곤문제들이 생태환경 파괴 현상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따른 첫째 잘못은 인간들이 최근까지 모든 것을 인간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해 왔다는데 있다. 지구와 생물권이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동양과는 달리 자연을 정복대상으로 여겨 왔던 서구에서 더욱 그래 왔다. 서구에서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것이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공업시대로 이끌어온결과 생태환경을 위기로 몰아 넣어 인간의 삶의 거처를 훼손하였다. 자연생태계를 생존경쟁, 약육강식이란 물로 관찰하고 먹느냐 먹히느냐의 각축장으로 보았다. 반면 동양에서는 자연을 공존의 관계에서 관찰하여 인간이 사라 숨쉬 듯 자연도 사라 숨쉬고 있으며, 사람과 자연은 더불어 사는 것이지 다른 하나를 정복할 수는 없다고 본다. 사람에게 살려는 의지가 있듯이 자연에게도 살려는 의지가 꿈틀거린다는 것이다. 생태계(Ecology)라는 말의 어원은 희랍어로 오이코스(Oikos)인데 이 말은 집이라는 뜻이다.

우리인류가 처음으로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게 된 것은 아폴로 우주선이 발사된 불과 20여년전의 일이다. 그때 인간이 발견하게 된 것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였다. 지구가 하나의 작은 행성에 불과하며 인간이 생물권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인류의 사고의 전환은 제2의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고 불러 지고 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며 동식물과 무생물을 포함한 모든 것은 인간에게 유익 무익을 불문하고 독자적인 존재의 권리와

양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잘 못은 만물의 삶의 터전인 생태계가 마치 현대인 만의 것인 양 우리가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구를 중요하게 여기라, 그것은 당신들의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신들의 자손으로부터 싣고 받은 것이다.” 라는 케냐의 격언에서 비롯된 “우리는 지구를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서 빌려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후손인 미래세대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만큼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공동미래” 보고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21세기 세계 만들기의 핵심 원칙인 “환경 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 ESSD” 미래의 세대가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대의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개발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세대간의 윤리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자기자손 곧 미래세대에 대한 현대인의 책임이다. 현대의 자연자원의 남용은 미래 세대의 몫을 앞당겨 쓰는 것이 되며 후손에게 어려움을 안겨 주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셋째 잘못된 인간이 활용하고 있는 자연자원이 무한대로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60년대 말에 세계의 현인들의 모임인 룬틀럼의 「성장의 한계」 보고서는 고갈되어 가는 자연 자원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①인구증가 ②식량생산 ③공업화 ④환경오염 ⑤재생 불능 자원소비의 증가 문제 등이 상호작용하는 성장을 지금과 같이 계속할 경우 인류는 100년안에 파국을 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간사회의 성장의 추구가 물질우선 경제우선 이 지속되는 한 21세기 중반에 이르면 지구는 환경오염, 자원, 에너지, 식량고갈에 의해 붕괴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70년대의 이러한 자원고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계속해 온 인류는 오늘날 자원고갈의 위험 보다 더 더급한 폐기물 처리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구의 자정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류는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다.

III 대책은 무엇인가:

지구를 황폐시켜서 현대대로서 끝나지 않도록 자손의 세대에도 그리고 그후에도 발전을 계속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서 장래 세대의 삶을 지탱시킬 수 있는 생태계의 능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현대인의 우선과제이다.

이러한 과제수행에는 정부, 기업을 비롯한 각사회구성원들의 각각의 특수역할이 있게 마련이나 교회여성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생활의 원점에서 생태환경을 지키는 일이 보다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최근 「주방에서 지구가 보인다」 또는 「주방에서 사회를 변혁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 이유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 환경문제가 거창하고 복잡하지만 그 해결은 생활의 원점인 주방에서부터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하라」에서 파생된 표현이다. 주방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곳 이어서 생활의 원점이 된다.

「생활의 원점에서 환경을 지킨다」라는 것은 모든 생활인이 자기가 선 자리에서 매일의 생활 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환경 의 파수꾼이라는 것이다.

인류가 직면한 환경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현대인의 생활양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이란 우선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소비미덕의 생활양식을 반성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 한채 「전기 룬으로 버터를 썰기까지 한다」는 미국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생활수준을 선망한 나머지 성장위주의 국가정책에 박수갈채를 보내며 부추겨 왔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보릿고개」라는 이름의 빈곤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 누리게 된 풍요한 생활대신 무거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물문제, 공기문제, 먹거리문제, 대두아 무늬아 탄생문제등이 그것이다. 지구적으로는 오존층파괴, 산성우, 지구온난화등의 지구위기의 경고가있다.

오직 하면 최승호라는 시인이 “공장시대”라는시 글귀로서 “무늬아를 낳고 보니 산모는 몸안에 공장지대가 들어선 느낌이다. 젖을 짜면 흘러내리는 허연 패수와 아이 배꼽에 매달린 비닐끈들, 저 굴뚝과 나는 간통한 것이 분명해”라는 말을 썼겠는가!

우리는 자칫 생태환경의 훼손이 나의 삶의 양식과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문제가 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생태파괴 현상을 생산과정에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폐기물 처리문제에서 보고 있듯이 소비과정에서 생기는 요인도 생산과정에 못지 않다. 모든 사람은 생산과정에서의 그리고 소비과정에서의 생태계 훼손의 책임을 지야 한다. 어쨌거나 생산은 소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데에서도 모든 책임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

우리모두는 환경파괴에 있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 가해자로서는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실천 수범해야 하는가 하면 피해자로서는 정부와 기업을 감시하며 지역환경과 지구환경을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

환경친화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①우리의 일상생활의 환경점검(Eco-Check)을 잊지 않고 하는 것이다. 에너지 절약, 쓰레기감량, 자원재활용, 대중교통수단 활용, 물의 절약및 재사용, 적정량의 물질사용등의 소비를 줄이는 생활을 말한다. 예를 들면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고 버리기까지의 과정, 꼭 필요한가,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가전제품인 경우 전기절약형 인가 재활용이 가능한가 또는 공해 식품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한다.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정리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한다. 영국을 포함한 외국의 경우 자선활동을 위한 수천의 중고품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자주 쓰지 않는 기구 등은 임대해서 사용하거나 공유하도록 한다. 최종 폐기 할 때는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도록 하며 재생용품을 우선 구입해서 사용한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교환하며,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환경운동체에 가담하는 것이 현명하다.

②지역환경을 보전하고 감시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늘과 같이 행정부의 환경의식의 미약함과 인력부족을 감안할 때 지역환경을 지키는 일은 지역주민이 할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이래 전면 실시 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로 시민자치시대가 열렸다. 모든 사람은 피해자로서의 환경감시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③피해자로서의 또하나의 의무는 기업에 대한 환경감시이다. 우리 나라의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에 비해 환경친화성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에게는 구미의 나라들과 같이 기업과 상품을 환경 적으로 평가한 안내서도 없다. 환경친화상품제도가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크게 좌우하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최근에는 많은 상품들이 녹색 상품인양 그리고 기업들이 녹색기업인양 광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과연 광고내용과 같이 환경친화적인 공정을 거쳐서 물품을 만들고 있는지 폐기물배출을 억제하며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공해방지 기술개발을 비롯한 환경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등의 감시를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와 함께 소비자의 뭉쳐진 힘으로 해내야 한다.

근래에 와서 우리 나라에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주부운동, 주민운동, 생활협동조합운동, 자연농산물직거래운동, 재활용품분리수거운동,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운동등, 친환경적인 생활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러한 운동은 도시주민의 건강한 식탁과 지역환경을 만들고 UR로 인한 폐농의 위기에 처한 우리 나라의 농촌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도농간에 막혔던 장벽이 제거된 유기적인 관계로 우리의 사회를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농촌이 살아야 도시도 산다는 말이다.

IV. 생명공동체를 위한 교회의 역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환경운동가인 바바라 워드는 1972년 유엔의 인간과 환

경회의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윤리성으로 생태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의 종교적인 신앙의 근본을 다시물으수 밖에 없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관리하는 일과 우리의 형제 자매인 인류의 운명에 관한 우리의 책임을 왜 면 하고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고 호소한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누구보다더 먼저 교회가 생명공동체운동을 앞장섰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필자의 경우만 하더라도 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의 활동으로 「생명문화운동」 전개에 참여한바 있다. 한국교회가 함께 이룩한 노력으로는 1992년 “환경의날”을 맞아 한국교회환경연구소, 교회협의회환경위원회등이 공동으로 환경주일을 선포하면서 「'92 한국기독교교회환경선언」을 발표한바 있다. 이 선언문에서는 생명존중의 가치관 확립, 겸소한 생활운동 확장, 일회용식 편의주의 배격, 친환경적인 생활지침수립과 실천 국내외 환경보전운동단체와 연대, 예배와 기도회, 성경공부등 교회집회에서 환경문제 교육및 이를 위한 운동전개, 반공해운동 적극전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교회목회의 형식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모든 피조물이 간절히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하느님의 자녀의 역할을 교회는 담당해야 할것이다. 이미 많은 개교회가 하느님의 창조질서 보전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교회는 이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기관의 환경관련분야 여론조사에 의하면 세계적인 문제로 환경문제(73.5%)를 압도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조사에서도 환경문제(일반국민 88.3% 여론주도층 92.1%)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해 빈부문제(68.9%와 67.3%)보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성장을 늦추는 한이 있어선 환경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일반 88.5% 여론94.8%)과 환경개선을 위한다면 제품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일반 86.1%)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불편과 비용부담이 따르게 마련인 실천에 있어서도 과연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인가 하는 데에는 의문을 가진다. 소비사회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시키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다.

이 어려운 과제를 현존하고 있는 조직체 중에서는 교회가 가장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무엇보다더 교회는 같은 신앙으로 뭉쳐진 조직이며 주기적으로 회동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느 집단보다더 강한 영향력 발휘가 가능하다.

교회는 특별히 예배와 설교, 교회의 교육, 신학교와 연구소, 교회집회와 학문적 회합들이 있어서 의식개혁의 성취와 뭉쳐진 힘을 발휘할 수 있다.

V 자녀교육과 생태환경:

최근에 특별히 젊은이들과 관련된 반윤리적인 사회병리현상이 사회문제화 될 때마다 잘못된 교육을 탓하면서 비정상적인 사회 환경이나 가정교육 부재를 문제 삼고 있다.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요즘 청소년들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며 과거에 비해 인내심도 약하다고들 한다. 경쟁의식을 고취시키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을 물론 그경쟁을 뚫게 하기 위한 과보호적인 가정분위기가 바로 그렇게 만든 원흉이라고 본다.

오늘의 우리자녀들은 먹거리나 생활용품, 하용품 어느것 하나 귀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풍부한 분위기에서 성장하고 있다. 또한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절제를 배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만큼 부모들은 미리 대령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입시준비 학생이 있는 경우 가정생활과 가정경제가 모두 그를 중심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 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첫 학습장이 어머니의 무릎이며 첫 교사가 어머니인 것과 교육은 어릴수록 효과가 있다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친환경적인 생활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야 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자연자원은 유한한 것이어서 소비를 절제해야 하며 자연의 순환원리를 터득케 하는 생활양식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물질적인 양에서 찾던 것을 비물질적인 질에서 찾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근래 주창되고 있는 「세계화를 위한 신교육」은 세계 중심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가 세계 중심국가로 발돋움 하는 것을 마다할지는 안으나 무엇으로 중심이 되겠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아주 중요하다. 만에 하나 그 내용이 경제 제일국가 또는 생활수준 향상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환경적인 발상이다. 생명과 직결된 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한 자녀교육문제는 오늘의 어머니들의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VI 맺는말:

오늘날 환경보전을 위해 온 국민이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필두로 장바구니들기운동, 무공해 먹거리를 위한 소비자운동등이 전개되고 있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연자원을 아끼는 일이다. 덜쓰고 덜 버려야 한다. 그리고 유독한 것은 아예 만들지도 쓰지도 않도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소모형 체제에서 순환형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은 개인생활을 자숙하는데서 한발자욱 나아가 힘을 모아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의 전환은 가치관의 대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인간과 환경」

가르침을 받았노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I 들어가는 말:

환경이란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생명체의 삶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인 조건들의 총체라고 되어 있다. 환경이란 어떤 주체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주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변 여건들의 총체라고 본다. "인간과 환경"이라고 하면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삶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주변 여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생활환경, 사회환경, 그리고 생태환경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환경이란 말에 대한 거부*
Environment
→ Ecology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생명과 직결되는 환경은 생태환경이다. 생태환경은 인간의 삶의 터전이며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생태환경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생태환경이 곧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Okas*

그런데 오늘의 세계에서 현실은 생명의 근원인 생태환경이 위협받고 있다. 현대문명의 위기의 요인인 생태환경의 오염이 심각해 졌다. 안심하고 마실 수 없는 물 문제를 비롯해서, 대기 오염, 식품오염, 쓰레기문제등으로 인간은 생태계의 큰 변화의 시점에 놓여 있다. 지금은 오염시대이다. 그리고 우리는 오염시대를 살고 있다. 세계는 온통 천재(한발, 홍수, 지진, 이상기온, 이변등)와 인재(체루노빌원전사고, 페만전쟁, 인도보팔의 유니온카마이트공장 사고, 미국 로부카넬의 다이옥신사고등)로 인한 불안 속에 처해 있다. 천재와 인재는 서로 연계되어있다는 것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Silent Spring, 생태계의 위기*

오늘의 생태환경문제가 전지구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은 생태계 파괴현상이 한 지역이나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지되었으나 70년대까지도 뒷전에 밀려있던 환경문제가 21세기를 향한 역사의 전환점에서 안정보장문제, 경제문제와 나란히 3대 과제의 하나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게 된 것은 그만큼 오늘의 생태환경이 위협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의 생존문제는 현세대인이 생태환경오염문제를 과연 해결해 낼 수 있는가 하는데 달려 있다. 21세기야말로 생명탄생 이후의 최대위기의 세기라고 할 수 있다. *Paul Elmer*
3대 과제
① 인문 (인문·자연·환경)
② 인문·자연·환경
③ 인문·자연·환경

II 생태환경 위기의 원인:

오늘의 생태계 파괴현상은 지난 200년간의 산업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특히 제2차 세계 대전이후 많은 자연자원을 소모해서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하는 현대인들의, 생활양식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인구증가 문제와 도시화문제 그리고 빈곤문제들이 생태환경 파괴 현상을 증폭시키고 있다. *개도국의 52% 증가 (3국)*

이렇게 되는데 따른 첫째 잘못은 인간들이 최근까지 모든 것을 인간중심으로만 생각하고 행동해 왔다는데 있다. 지구와 생물권이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동양과는 달리 자연을 정복대상으로 여겨 왔던 서구에서 더욱 그래 왔다. *1959-68 (90%)*

서구에서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공업화시대로 이끌어온 결과 생태환경을 위기로 몰아 넣어 인간의 삶의 거처를 훼손하였다. 자연생태계를 생존경쟁, 약육강식이란 틀로 관찰하고 먹느냐 먹히느냐의 각축장으로 보았다. 반면 동양에서는

자연을 공존의 관계에서 관찰하여 인간이 사라 숨쉬듯 자연도 사라 숨쉬고 있으며, 사람과 자연은 더불어 사는 것이지 다른 하나를 정복할 수는 없다고 본다. 사람에게 살려는 의지가 있듯이 자연에게도 살려는 의지가 꿈틀거린다는 것이다. 생태계(Ecology)라는 말의 어원은 희랍어로 Oikos인데 이 말은 집이라는 뜻이다.

우리인류가 처음으로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게 된 것은 아폴로 우주선이 발사된 불과 20여년전의 일이다. 그때 인간이 발견하게 된 것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지구가 하나의 작은 행성에 불과하며 인간이 생물권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인류의 사고의 전환은 제2의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이라고 불러 지고 있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며 동식물과 무생물을 포함한 모든 것은 인간에게 유익 무익을 불문하고 독자적인 존재의 권리와 양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식물과 인간은 공동운명체이다. (갈릴레오, 도나타스르르르르)

둘째 잘 못은 만물의 삶의 터전이며 미래의 모든 세대의 거처인 생태계가 마치 현세대인 만의 것인 양 남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치 지구의 마지막세대인 것처럼 함부로 지구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지구를 중요하게 여겨라, 그것은 당신들의 부모에게서 받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신들의 자손으로부터 신탁 받은 것이다.” 라는 케냐의 격언에서 비롯된 우리는 지구를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서 빌려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후손인 미래세대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만큼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우리의 공동미래” 보고서에서 주창하고 있는 21세기 세계 만들기의 핵심 원칙인 “환경 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 ESSD”은 미래의 세대가 그들 스스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개발로 정의하고 있는 것은 세대간의 윤리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자기자손 곧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인의 책임이다. 현세대의 자연자원의 남용은 미래세대의 몫을 앞당겨 쓰는 것이 되며 후손에게 빈곤을 안겨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셋째 잘못된 인간이 활용하고 있는 자연자원이 무한대로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60년대 말에 세계의 현인들의 모임인 롬클럽의 「성장의 한계」 보고서는 고갈되어 가는 자연자원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①인구증가 ②식량생산 ③공업화 ④환경오염 ⑤재생불능 자원소비의 증가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 성장을 지금과 같이 계속할 경우 인류는 100년안에 파국을 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사회의 성장의 추구가 물질우선 경제우선 이 지속되는 한 21세기 중반에 이르면 지구는 환경오염, 자원, 에너지, 식량고갈에 의해 붕괴된다고 예측하고 있다. 자원은 유한한 것이다.

70년대의 이러한 자원고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계속해 온 인류는 오늘날 자원고갈의 위협보다 더 급한 폐기물 처리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구의 자정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류는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다.

III 대책은 무엇인가:

지구를 환폐시켜서 현세대로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세대인의 우선 과제이다. 자손의 세대에도 그리고 그후세에도 발전을 계속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서 장래 세대의 삶을 지탱시킬 수 있는 생태계의 능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수행에는 정부, 기업을 비롯한 각사회구성원들의 각각의 역할이 있게 마련이나 자녀교육을 위한 어머니 교실에서는 생활의 원점에서의 생태환경을 지키는 일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최근 「주방에서 지구가 보인다」 또는 「주방에서 사회를 변혁한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러고 보면 「주방에서 자녀교육을 한다」 라는 말도 가능해진다. 그 이유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 환경문제가 아무리 거창하고 복잡하지만 그 해결은 생활의 원점인 주방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에서 행동하라」 라는 지구환경운동의

표어를 달리 표현한 것이다. 주방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곳이어서 생활의 원점이 된다.

「생활의 원점에서 환경을 지킨다」라는 것은 모든 생활인이 자기가 선 자리에서 매일의 생활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환경의 파수꾼이라는 것이다.

인류가 직면한 환경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세대인의 생활양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이란 우선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소비미덕의 생활양식을 반성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전기 룬으로 버터를 썰기까지 한다」는 미국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선진국의 생활수준을 선망한 나머지 성장위주의 국가정책에 박수갈채를 보내며 부추겨 왔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서는 「보릿고개」라는 이름의 빈곤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 누리게 된 중요한 생활대신 무거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물 문제, 공기문제, 먹거리문제, 대두아 무늬아 탄생문제등이 그것이다. 지구적으로는 오존층파괴, 산성우, 지구온난화등의 지구위기의 경고가 있다.

오직 하면 최승호 시인이 "공장시대"라는 시에서 "무늬아를 낳고 보니 산모는 몸안에 공장지대가 들어선 느낌이다. 젖을 짜면 흘러내리는 허연 폐수와 아이 배꼽에 매달린 비닐 끈들, 저 굴뚝과 나는 간통한 것이 분명해"라는 말로 오늘의 생태환경을 비판했겠는가!

우리는 자칫 생태환경의 훼손이 나의 삶의 양식과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문제가 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생태파괴 현상을 생산과정에서만 생기는 것으로 말하고 있었지만 폐기물 처리문제에서 보듯이 소비과정에서 생기는 요인도 생산과정에 못지 않다. 모든 사람은 생산과정과 소비과정에서의 생태계 훼손의 책임을 져야 한다. 어쨌거나 생산은 소비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모두는 환경파괴에 있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이다. 가해자로서는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실천 수범해야 하는가 하면 피해자로서는 정부와 기업을 감시하며 지역환경과 지구환경을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다.

환경친화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①우리의 일상생활의 환경정점(Eco-Check)을 잊지 않고 하는 것이다. 에너지 절약, 쓰레기감량, 자원재활용, 대중교통수단 활용, 물의 절약 및 제사용, 적정량의 물질사용등의 소비를 주리는 생활을 말한다. 예를 들면 물품을 구입할 때 사용하고 버리기까지의 과정, 꼭 필요한가,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가전제품인 경우 전기절약형 인가 재활용이 가능한가 또는 공해 식품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한다.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정리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한다. 영국을 포함한 외국의 경우 자선활동을 위한 수천의 중고품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자주 쓰지 않는 기구 등은 임대해서 사용하거나 공유하도록 한다. 최종적으로 폐기할 때는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도록 하며 재생용품을 우선 구입해서 사용한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교환하며, 교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적어도 하나의 환경운동체에 가담하는 것이 현명하다.

②지역환경을 보전하고 감시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늘과 같이 행정부의 환경의식의 미약함과 인력부족을 감안할 때 지역환경을 지키는 일은 지역주민이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전면 실시 예정인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면 시민자치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피해자로서의 환경감시 책임도 다해야 한다.

③피해자로서의 또하나의 의무는 기업에 대한 환경감시이다. 우리 나라의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에 비해 환경친화성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에게 는 구미의 나라들과 같이 기업과 상품을 환경 적으로 평가한 안내서도 없다. 환경친화상품제도가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크게 좌우하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최근에는 많은 상품들이 녹색상품인양 그리고 기업들이 녹색기업인양 광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과연 광고내용과 같이 환경친화적인 공정을 거쳐서 물품을 만들고 있는지 폐기물배출을 억제하며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공해방지 기술개발을 비롯한 환경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지등의 감시를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와 함께 소비자의 동거진 힘으로 해내야 한다.

근래에 와서 우리 나라에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주부운동, 주민운동, 생활협동조합운동, 자연농산물직거래운동, 재활용품분리수거운동,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운동등, 친환경적인 생활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이러한 운동은 도시주민의 건강한 식탁과 지역환경을 만들고 UR로 인한 폐농의 위기에 처한 우리 나라의 농촌을 되살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도농간에 막혔던 장벽이 제거된 유기적인 관계로 우리의 사회를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농촌이 살아야 도시도 산다는 정신에서이다.

IV 자녀교육과 생태환경:

최근에 특별히 젊은이들과 관련된 반윤리적인 사회병리현상이 사회문제화 될 때마다 잘못된 교육을 탓하면서 비정상적인 사회 환경이나 가정교육 부재를 문제 삼고 있다.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요즘 청소년들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고 과거에 비해 인내심도 약하다고들 한다. 경쟁의식을 고취시키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은 물론 그 경쟁을 뚫게 하기 위한 과보호 적인 가정분위기가 바로 그렇게 만든 원흉이라고 본다.

오늘의 우리자녀들은 먹거리나 생활용품, 학용품 어느것 하나 귀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풍부한 분위기에서 성장하고 있다. 또한 하고싶은것에 대한 절제를 배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만큼 부모들은 미리 대령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입시준비학생이 있는 경우 가정생활과 가정경제가 모두 그를 중심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 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첫 학습장이 어머니의 무릎이며 첫 교사가 어머니인 것과 교육은 어릴수록 효과가 있다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친환경적인 생활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야 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자연자원은 유한한 것이어서 소비를 절제해야 하며 자연의 순환원리를 터득케 하는 생활양식을 배우도록 해야 한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물질적인 양에서 찾던 것을 비물질적인 질에서 찾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근래 주창되고 있는 「세계화를 위한 신교육」은 세계 중심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가 세계 중심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으나 무엇으로 중심이 되겠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아주 중요하다. 만에 하나 그 내용이 경제 제일국가 또는 생활수준 향상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환경적인 발상이다. 생명과 직결된 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한 자녀교육은 필수적인 것이며 자녀들의 올바른 자연관, 세계관등의 교육을 통해 덕지체의 균형 잡힌 인간 교육을할 수 있다고 여겨서 오늘의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친환경적인 생활교육을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V 맺는말:

오늘날 환경보전을 위해 온 국민이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필두로 장바구니들기운동, 무공해 먹거리를 위한 소비자운동등이 전개되고 있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연자원을 아끼는 일이다. 덜 쓰고 덜 버려야 한다. 그리고 유독한 것은 아예 만들지도 쓰지도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소모형 체제에서 순환형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은 개인생활을 자숙하는데 끝일 것이 아니라 사회윤리로 이끌어 내기 위한 사회운동 내지는 정치운동으로 전개해야한다. 이러한 생활양식의 전환은 가치관의 대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1세기 환경 정책 방향 - 대충 20
환경문제 해결 - 인간과 환경이 조화롭게

** Concepter Paper

환경과 인간

張 元 (배달녹색연합, 대전대)

I. 序

오늘날 현대문명의 위기는 환경오염 문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가장 위험한 독은 스스로에서 나오는 분비물, 즉 자독(自毒)이라고 한다. 인간의 자기분비물은 바로 환경오염물질이며 이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한 인간은 자멸할 수 밖에 없다. 현대문명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생존이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에 달려 있다.

사실 지금으로부터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환경오염 문제가 전쟁, 질병, 기아 등의 당면 문제들을 제치고 인류생존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부상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6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환경오염'이란 말은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였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환경오염이 인류의 장미빛 미래를 파괴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인식이 제고되기 시작하였다.

범세계적으로 오존층 파괴, 산성비, 온실효과, 해양오염, 열대우림의 감소와 사막화 등이 지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쓰레기 배출 등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지구과학자들은 제7권역인 지능권의 영향으로 수권, 대기권, 빙권, 생물권이 현재 격렬한 변화의 고비에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격렬한 변화를 우리 세대와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서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들은 현재 그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구 시스템이 과거에도 큰 충격을 잘 견디어 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또한 오늘날 우리가 걱정하는 기이한 변화 중의 어떤 것들은 관측 장비들이 대단히 미세한 것까지 포착해냄으로써 때로는 과장되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앞으로 다가올 100년 동안 거친 풍랑을 마주할 것이 분명하다. 환경에 대한 위기 상황은 더욱 더 급박해질 것이다. 다음 세기에 닥칠 최악의 폭풍우는 우리들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며, 그 재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오직 행운이 필요할 따름이다. 가장 비관적으로 보면, 우리들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종의 역사에 있어서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앞으로의 100년은 생명이 탄생한 이후 최대의 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듯 환경오염은 그 속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인들은 아직도 진보에의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으며 일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위기의 상황에 직접 대면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데 있다. 아직 대부분 나라의 정책 입안자나 환경전문가들까지도 지구환경의 결정적 파괴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

돈이 아니라
3000억
360억 2300억

물론 이러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지구적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야 인류는 비로소 지구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들을 시작하고 있다. 87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CFC 사용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몬트리올의정서를 채택한 데 이어 94년 3월 21일부터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이 그 대표적인 성과물이다. 몬트리올의정서는 CFC 사용량을 현수준으로 동결하고 95년까지는 50%, 2000년까지는 전량을 생산중단하는 것으로 돼있다.

기후변화협약은 대기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내용적으로는 기후변화 방지협약인 셈이다. 이 협약은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가 88년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온난화현상을 막기 위해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배출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데서 비롯됐다. 92년 6월 리우환경회의에서 165개국(당시 165개국)이 이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본격적인 실시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 협약에 가입한 모든 국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이 협약의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개도국은 발효 후 3년 안에, 선진국은 6개월 안에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제성장론자들은 지구환경파괴라는 명백한 사실을 간과하고 인류의 생존을 담보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구환경이 오염에 대해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를 이들은 시험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논의의 기초는 지구환경은 명백히 파괴된다는 데에 두어져야 하며 지구를 환경파괴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바야흐로 환경오염에 의해 전인류가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의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하게 되었다. 이제 환경오염 문제는 오늘날 이 환경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절실하게 생각하고 보다 깊이 있게 거론해야 할 것임에 분명하다.

II. 본

이러한 환경의 파괴는 크게 볼 때 현대사회의 지나친 소비와 인구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산업국가에 있어 소비는 이제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자리잡고 있다. 소비사회는 자원의 남용을 부추기고 그것은 곧 삼림, 토양, 물, 공기의 오염과 직결된다.

그렇다고 파소비에 상반되는 빈곤이 환경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물론 없다. 빈곤은 항구적으로 인간에게 바람직하지 않거니와 자연환경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땅을 잃은 농민들은 라틴아메리카의 열대우림 속에서 화전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으며, 굶주린 아프리카 유목민들은 그들의 숲을 손상되기 쉬운 방목지로 만들어 차츰 사막으로 변하게 하고 있다.

환경파괴가 이와 같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소비하거나 너무 적게 가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라면, "얼마만큼 가져야 충분한가"라는 의문이 남게 된다. 지구는 어느 정도의 소비수준을 지탱해 낼 수 있을까? 언제쯤에야 사람들은 만족을 위해 더 많이 갖기를 그칠 수 있을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구의 자연환경을 손상시킴 없이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 지금과 같은 소비생활 수준 이하이긴 하지만 빈곤하지 않은, 어떤 충분한 수준의 생활방식은 존재하는 것일까?

지금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만족스런 해답을 제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비지향적 생활양식을 제한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옹호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같은 생활양식이 확산되는 것은

환경의 파괴를 가속시킬 뿐이다.

지구환경은 미국 소비자처럼 살아가는 11억명에 달하는 인구를 지탱할 수 없을 뿐더러, 하물며 현재의 55억 인구나 최소한 80억에 이를 미래의 인구가 우리와 같은 생활양식을 즐긴다면 더 말할 필요도 없다. 한편 소비사회의 소비수준을 낮추고 나머지 계층의 물질에 대한 갈망을 진정시키는 것이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해도 현실적인 제안은 아니다.

소비사회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시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주고 있는 지구생태계가 미래세대를 위해 존속할 수 있으려면 현재의 소비사회는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산업제품들을 고품질 또는 내구성으로 전환하여 자원의 투입량을 줄이고, 부분적으로는 여가와 인간 관계 그리고 기타 비물질적인 수단을 통해 만족을 얻음으로써 소비에 대한 욕구를 줄이지 않으면 안된다. 과학의 발전과 제도의 개선, 산업구조의 재편성, 새로운 환경조약, 환경세, 플루리 시민운동 등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인구 증가 또한 지나친 소비와 더불어 지구환경파괴의 양대 축이라 할 만하다. 매년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로 기념되고 있다. 1987년 6월 5일은 유엔에 의하여 세계 인구가 50억에 달한 것을 상징하는 순간으로 선택되었다. 1960년 경에는 인구가 30억으로 되었으며 1974년 경에는 40억으로 급속하게 늘어났다. 인도와 중국의 수정된 출산율에 기초를 둔 최근의 추산에 따르면 60억 수준은 이전의 예상보다 1년 더 빠른 1998년까지 도달할 것이라 한다. 인구증가 곡선은 다음 세기 중반에 이르러 그 기세가 줄어들 것이나 인구는 약 100년 후 안정이 성취되기 전에 10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일인당 자원 소비량도 급증하였지만 인구 그 자체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지구 자원의 총량적 소모와 그로 말미암은 폐기물의 증대 또한 엄청나다. 이미 지구의 인구는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생태적 인구 규모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심각한 지구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수준, 인구증가, 과학기술의 발달 세가지 변수를 다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의 조화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의 환경경제학자 데일리(Herman Daly)는 단지 지구환경 오염과 생태학적 손실의 가속화를 멈추게 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기술의 환경개선 능력이 향후 40년 동안 현재의 20배 정도 향상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이같은 추정은 산업국가의 1인당 자원소비의 증가가 즉시 멈추고, 같은 기간 동안 세계인구가 두배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가정 위에서 얻어진 것이다. 즉 소비수준과 인구증가가 억제된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 추정인 것이다.

농업과 교통, 도시계획, 에너지 및 그 밖의 부문에 있어서 기술과 수단의 변화가 현재의 시스템에 의해 야기되는 환경에의 악영향을 급격히 감소시킬 수는 있겠지만, 20배의 발전이란 무리다. 일정량의 연료로 세배나 네배 정도 더 달릴 수 있는 자동차는 현실성이 있지만, 20배나 더 가는 자동차는 열역학법칙상 불가능하다. 여행으로 인한 환경비용을 그만큼, 즉 20분의 1정도로 줄일 수 있는 교통수단은 사실 자전거와 버스 그리고 철도 뿐이다.

그러므로 인류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가치기준을 변화시켜야 한다. 기술의 변화와 인구의 안정화는 물질적 욕구의 감소 없이는 지구를 구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 인구의 안정화를 향한 급속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깨끗하고 효율적인 기술의 개발에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인류가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비물질적인 목

표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욕구는 생물권을 황폐시키고 말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생물권을 위협하지 않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공생하게 하려면 기술의 변화와 가치의 변화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주요 소비 사회 국가에서의 여론 조사에 의하면,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중 어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환경 보호를 택하겠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침 보다 적절함을 받아들이는 또한 생태적 가정, 기업, 정부로의 회귀가 대단히 중요하다. 가족과 공동체, 만족스런 노동, 양질의 삶의 새로운 질서로 돌아가야 한다.

130D 2월
50D
2월 14일

III. 結

과학기술의 힘으로 지구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다. 인류의 미래를 결정적으로 좌우할 주요 기술개발로는 ▲이산화탄소를 회수, 고정시키는 기술 ▲ 화석연료를 대체할 자연에너지의 이용기술 ▲ 핵융합발전 기술 ▲ 바이오테크놀로지에 의해 식량을 양산하는 기술 등이 꼽힌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인류의 지구 노력과 기술개발의 효과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각종 환경규제책이 선진국과 후진국 등의 이해관계에 따라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가 현대문명사회가 대량소비의 생활패턴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획기적인 기술개발에 성공한다고 해도 이는 시간벌기에 불과할 뿐이며, 언젠가 닥쳐올 지구의 최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바탕하여 결국 전 세계인은 **환경생태적 삶을 살지 않으면 안된다.** 환경생태적 삶이란 한마디로 생태계로 부터 이탈(逸脫)된 인간의 삶을 다시 원위치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자연과 함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사는 것이다. 엔트로피의 증가 속도를 줄이고 소모형 체계보다는 순환형 체계를 선호하는 삶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원을 절약하고 가능하면 모든 것을 되살려 사는 삶이다.

• 참고문헌 : 소비사회의 극복, 구자건 역, 따님

지구의 마지막 선택, 김영일 역, 동아

100년 후 그리고 인간의 선택, 이용수, 홍옥희 역, 김영사

지구환경과 세계경제 I, 월드워치연구소

요동하는 지구, 다가오는 대재앙, 신동아 4월호

****몇가지 토론 주제.**

강력한 경제와 강력한 환경?

ESSD가 환경문제 해결의 중심개념이 될 수 있나?

후세대도

동양철학이 환경문제 해결의 사상적 씨앗이 될 수 있나?

한국은 어떤 환경정책 기조 유지해야 하나?

21세기의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이란 ?

총체적 접근은 어떤 식으로 ? (Holistic, Ecological, New Scientific View)

문화운동으로서의 녹색대안운동?

첨단과학기술이 환경문제 해결할 수 있나?

** NSI, 갤럽 설문조사 결과 (환경관련분야)

설문 결과 일반국민과 여론선도층 모두 환경문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일반국민의 경우, 물가(27.8%)·교통(23.8%)·환경(23.5%)을 꼽았으며, 여론 선도층은 의식개혁(39.5%)·환경(18.0%)·통일(17.3%)을 가장 크게 꼽았다.

특히 여론선도층은 세계적인 문제로 지구 환경문제(73.5%)를 압도적으로 많이 지적했으며, 자원과 에너지 문제(21.5%), 핵문제(7.3%)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 조사에서도 환경문제가 (일반국민 88.3%, 여론선도층 92.1%)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해 빈부문제(일반국민 68.9%, 여론선도층 67.3%)보다 훨씬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미래전망에서도 환경문제를 가장 비판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늦추는 한이 있어도 환경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생각(일반국민 88.5%, 여론선도층 94.8%)과 환경개선을 위한다면 제품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일반국민 86.1%)이 압도적이었다. 남비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대화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 62.2%였다.

그리고 국정목표 방향으로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환경문제에 관한 한 우리 국민은 지구전체를 함께 생각하는 지구공동체 의식과 실천의지를 함께 갖추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